

# 일본 원폭문학의 효시 하라 다미키(原民喜)의 『여름 꽃(夏の花)』 고찰

이정희\*

## || 차례 ||

1. 들어가기
2. 원폭문학과 원폭문학연구
3. 원폭문화의 효시 『여름 꽃(夏の花)』의 세계
4. 『여름 꽃(夏の花)』 독서토론 감상문
5. 나오며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본 원폭문학의 효시라 불리는 하라 다미키(原民喜)의 단편소설 『여름 꽃(夏の花)』을 고찰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름 꽃』은 작가의 원폭체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먼저, 일본에서 원폭문학이라는 장르가 언제 탄생했으며, 원폭문학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품 『여름 꽃』이 지니는 의미를 비롯하여, 작품 속 세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위해 독서토론을 실시하였고 독서토론에 참가한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감상문을 함께 실었다. 이러한 작업은 필자가 원폭문학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원폭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며 인간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 가를 알리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주제어 : 원폭문학, 하라 다미키, 여름 꽃, 원폭문학연구, 나가사키.

---

\* 위덕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leejh@uu.ac.kr

## 1. 들어가기

본 논문에서는 일본 원폭문학의 효시라 불리는 하라 다미키(原民喜, 1905~1951)의 단편소설 『여름 꽃(夏の花)』에 나타나 있는 피폭 상황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면서 작가의 체험과 사상, 그리고 독서토론에서 실시한 작품 읽기에서 학생들의 감상을 덧붙여서 작품 세계를 고찰하였다<sup>1)</sup>. 소설가이자 시인인 하라 다미키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폭 투하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피폭체험을 “기록해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식 하에 자신이 체험한 것을 1947년 『여름 꽃』이라는 작품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여 세상을 달리 할 때 까지 작품 활동을 계속해 갔다. 작품 『여름 꽃』은 1946년 1월 잡지 『근대문학(近代文學)』 창간호에 『원자폭탄(原子爆彈)』이라는 제목으로 실릴 예정이었는데, 당시 GHQ의 원폭에 관한 기사 사전 검열로 인해 발표가 금지되었다<sup>2)</sup>.

그래서 하라 다미키는 작품 제목을 『원자폭탄』에서 『여름 꽃』으로 변경하여, 1947년 6월 잡지 『미타문학(三田文學)』에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48년에 제1회 미나카미 다키타로상(水上瀧太郎賞)<sup>3)</sup>을 수상하였다.

무엇보다도 『여름 꽃』은 작가의 원폭체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문학생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작가 마루오카 아키라(丸岡明)는

- 
- 1) 본 독서클럽은 우리대학 도서관 주최로 실시하는 <위덕독서클럽>으로 매학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한 학기 단위로 운영을 한다. 지난 1학기에는 3월 20일(월)부터 시작해서 6월 5일(월)까지 총 12회를 실시하였다. 한 클럽 당 회원은 7~8명으로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론 위주로 진행한다. 필자가 지도교수인 독서클럽에서는 하라 다미키의 『여름 꽃』과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를 읽었다.
  - 2) 이 프레스코드(Press Code)라 불린 신문을 비롯한 잡지 등의 사전검열은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약 7년 정도 지속되었다.
  - 3) 미나카미 다키타로상(水上他來瀧太郎賞)은 문예잡지 『미타문학(三田文學)』 창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게이오의숙대학(慶應義塾大學) 미타문학회(三田文学會)가 주최하였다. 1948년 제1회와 1949년 제2회를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말았다.

『여름 꽃』의 첫 도입부분에 화자인 주인공이 꽃을 사들고 부인의 묘소를 찾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원자폭탄 투하로 한 순간에 도시가 폐허가 된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성을 갖게 해서 성공한 작품이라고 했다<sup>4)</sup>. 문예평론가 야마모토 겐키치(山本健吉)는 『여름 꽃』이 부인의 묘에 꽃을 바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원폭투하로 한순간에 죽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진혼제였다고 말하고, 그래서 『여름 꽃』이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sup>5)</sup>.

이렇듯 『여름 꽃』에 대해서는 작가가 자신의 원폭체험을 그려냈지만, 거기에 문학성이 가미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하라 다미키는 『여름 꽃』 발표 이후 계속해서 원폭체험을 작품화 하는데, 1947년 11월에 『폐허에서(廢墟から)』를, 1949년 1월에는 『괴멸의 서곡(壊滅の序曲)』을 발표하였다. 흔히 이들 작품과 『여름 꽃』을 ‘여름 꽃 3부작’이라고 부르는데, 본 논문에서는 『여름 꽃』만을 고찰하고 나머지 다른 작품 고찰은 향후 과제로 삼기로 한다.

## 2. 원폭문학 탄생과 원폭문학연구

원폭문학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원폭문학사(原爆文學史)』를 정리한 나가오카 히로요시(長岡弘芳)가 “원폭문학은 원폭투하를 목격한 것에 한하지 않고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존재를 쪼먹고 위협하는, 그 사실을 주제로 하는 문학”이라고 정의했다<sup>6)</sup>. 또한 원폭문학에 대해서, “원폭이 초래한 여러 죄악과 그에 대한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문학”이라고 했다<sup>7)</sup>.

적어도 현시점에서 원폭문학에 대한 정의는 나가오카가 내린 정의에 기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원폭문학을 ‘원폭에 관한 문학의

4) 丸岡明 「原爆と知識人の死」 『日本の原爆文学①』 p.297

5) 山本健吉 「詩人の死」 『日本の原爆文学①』 p.282

6) 長岡弘芳 『原爆文学史』 風某社, 1973, p.3

7) 長岡弘芳 『原爆文学史』 風某社, 1973, p.155

총칭'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그것이 문학적으로 문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원폭에 관한 작품이라면 원폭문학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폭을 다룬 것이라면 다큐멘터리 식의 기록물도 좋고 만화도, 일기도 좋다. 이들 모두가 원폭문학인 것이다.

그런데 원폭문학이 문학의 한 장르로서 자리 잡은 것은 원폭문학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고 나서도 25여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가와구치 다카유키(川口隆行)는 원폭문학이라는 장르가 확립된 시기를 1970년대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하라 다미키의 작품 『여름 꽃』이 고등교육국어교과서에 실린 1974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8)</sup>. 아울러 이부세 마사지의 작품 『검은 비(黒い雨)』가 고등교육국어교과서에 실린 것은 1976년이었다. 이 두 작품이 원폭체험을 그린 원폭문학의 대표 작품으로 선정되어 교과서에 실리게 된 시점이 바로 원폭문학의 확립기라는 것이다.

원폭에 관한 문학작품이 공교육 제도 속의 교과서에 채용되었다는 것은 일본국민의 공통된 기억과 체험의 표상으로 원폭문학이 확고히 한 장르로서 그 위치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가네코 아키요(金子章予)는 트라우마 기억에서 모노가타리(物語) 기억으로 전환시키려고 한 국가적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지적하고 있다<sup>9)</sup>.

나아가 원폭문학의 발달과 확산을 초래한 것은 지금까지 원폭문학연구가 꾸준히 행해졌기 때문이다. 원폭문학연구의 최초의 성과는 1973년에 출판된 나가오카 히로요시의 『원폭문학사(原爆文学史)』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그리고 또 하나의 위대한 성과는 1983년에 전집 15권으로 발행한 『일본 원폭문학(日本の原爆文学)』이다<sup>11)</sup>. 이 전집은 핵전쟁의 위험을 호소하는 문학자들의 성명에 서명한 작가들이 기획한 것으로 호루프출판사(ほるぷ出版)에서 발행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원폭문학연구 성과는 바로

8) 川口隆行 「『原爆文学』という問題領域」 『プロブレマティック 文学/教育2』 2001年7月号

9) 金子章予 「井上光晴の原爆文学の現代的意義」 『西武文理大学紀要』 27, 2015. 12.

10) 長岡弘芳 『原爆文学史』 風謀社, 1973.

11) 개인적으로 지난 3월에 본 전집을 구매해서 원폭문학연구에 돌입하고 있다.

<원폭문학연구회> 활동이다.

필자는 지난 2016년 7월에 당시 <원폭문학연구회>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던 후쿠오카대학(福岡大学)의 나카노 가즈노리(中野和典)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sup>12)</sup>. 나카노교수에 의하면 2001년 12월 일본근대문학연구자였던 하나다 도시노리(花田俊典)가 주축이 되어 제 1회 연구회가 개최되었고, 연구회가 발족한 당시에는 회원이 30여명이었는데, 지금은 70여명이 넘는다고 했다. 나카노교수는 연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목적은 원폭으로 인한 피해와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리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절대 원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반핵운동이며, 세 번째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원자력발전소 폐기와 핵병기 소멸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국의 작가 한수산의 장편소설 『군함도(軍艦島)』<sup>13)</sup>를 읽고, 한국인 피폭자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필자 역시 원폭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2016년 5월에 출판된 한수산 작가의 『군함도1, 2』를 읽고, 그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나가사키현(長崎県)에 있는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軍艦島)를 방문하고 나서부터였다. 물론 한수산 작가의 장편소설 『군함도1, 2』는 원폭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소설 내용이 피폭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설 2권 마지막 부분에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이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에 나가사키에 있어서 피폭을 당했거나, 피폭지인 나가사키 시내 청소로 동원되어 청소하는 과정에서 피폭을 당한 것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원폭병으로 죽어가는 지도 모르고 죽어갔고, 또한 한국에 돌아와서 피폭증세가 나타나도 그것이 원폭으로 인한 증세인지도 모른 채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원폭문학연구는 최종적으로 한국인의 피폭 문제에 관한 연

12) 2016년 7월 26일 후쿠오카대학 나카노교수 연구실을 방문하고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정리한 내용은 본문에 실는다. 그리고 <원폭문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잡지 『원폭문학연구』를 필자의 원폭문학 연구를 위해 무상으로 기부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3) 韓水山 『軍艦島(上, 下)』 作品社, 2009.

구라 하겠다.

### 3. 원폭문학의 효시 『여름 꽃』의 세계

#### 3.1 아내 하라 사다에(原貞恵)의 죽음

『여름 꽃』은 1년 전에 죽은 아내의 묘소를 찾아가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 노란색을 띤, 누가 봐도 여름 꽃다운 꽃을 사가지고 묘소를 찾았다. 그리고 그날 피운 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그 다음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것이다.

실제로 하라 다미키의 부인 하라 사다에(原貞恵)는 오랜 지병인 당뇨병과 결핵으로 인해 1944년에 33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달리하고 만다. 이때 하라 다미키는 부인과의 추억과 사랑을 슬프고도 아름다운 글로 남기기 위해 1년만 더 살고 부인의 뒤를 따르겠다고 했다<sup>14)</sup>.

소설 속에서는 1년 뒤인 1945년 8월 4일 아내 묘소를 다녀온 다음 다음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다. 소설에서도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라 다미키는 8월 6일 히로시마시(広島市)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자택에서 원폭 투하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집이 워낙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고, 마침 좁은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다. 그러나 집은 결국 불에 타서 소실되고 말았고, 이틀정도 노숙을 하고 히로시마시에서 동쪽으로 피난을 갔다<sup>15)</sup>.

원폭체험 이후 하라 다미키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에 일기에 자세히 기록을 해 두었고, 수많은 원폭 시(詩)와 소설을 써서 발표했다. 그러다가 17통의 유서를 남기고 1951년 3월 철로 위에 누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그의 자살에는 한국의 6.25전쟁과도 관

14) 原民喜 「死と愛と孤独」 『日本の原爆文学①』 p.244

15) 原民喜 「原爆被災時のノート」 『日本の原爆文学①』 p.244 文学①』 p.70

련이 있다. 한국에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한국에도 원자폭탄을 투하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하라 다미키는 원폭에 대한 노이로제와 원폭 투하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감행한 것이다.

하라 다미키에게 있어서 사다에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진정으로 부인을 사랑했다고 생각한다. 하라 다미키는 젊은 나이에 병고에 시달리다 먼저 세상을 뜬 부인이 애처롭고, 가엾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래서 원폭투하라는 사상 초유의 체험을 그린 『여름 꽃』에도 어딜 가나 부인의 자취를 엿볼 수가 있다.

작품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N이라는 남자를 등장시켜 피폭지에서 부인을 찾는 장면이 나온다. N이 시체더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확인 하면서 자신의 부인을 찾는 모습에서 작가의 모습이 겹쳐진다.

### 3.2 피폭지에서의 수많은 죽음

『여름 꽃』에는 수많은 피폭자들의 죽음이 그려져 있다. 인용 부분은 그 중의 일부일 뿐이다.

① 똑바로 보자 바로 그 강 속에는 발가벗은 소년이 머리마저 물에 푹 잠긴 채 죽어 있었는데, 그 시체와 약 1미터정도 떨어지지 않은 돌계단 쪽에 두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sup>16)</sup>

② 새벽이 오기도 전에 자꾸만 엽불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죽어가는 것 같았다. 아침 해가 높이 솟아오를 무렵 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도 숨을 거두었다.<sup>17)</sup>

③서쪽 연병장 근처의 빈터에 눈에 익은 노란색 반바지 차림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둘 째 형이 그것을 바라보더니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형수와 나도 마차에서 내려갔다. 눈에 익은 바지와 밴드를 맨 옷차림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조카

16) 原民喜 「夏の花」 『日本の原爆文学①』 p.18

17) 原民喜 「夏の花」 『日本の原爆文学①』 p.21-22

후미코였다.<sup>18)</sup>

④이것은 정밀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실현된 신지옥(新地獄)임에 틀림없고, 여기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것이 말살되었다.<sup>19)</sup>

⑤외곽만 남아 있는 아사노(淺野) 도서관은 시체 수용소로 변해 있었다.<sup>20)</sup>

⑥화상을 당한 하녀의 팔은 심하게 굽아버린 탓인지 파리가 모여 들었고, 마침내 구더기가 들끓는 상태로까지 악화되었다. 구더기는 아무리 소독을 해도 계속해서 들끓었다. 그리고 그녀는 1개월 남짓 지난 후 서서히 죽어갔다.<sup>21)</sup>

위의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죽음이 등장한다. 강물에 발가벗은 채로 죽어있는 소년의 시체, 발밑에는 시체가 열기를 뿜어내고 있고, 검게 그을린 채로 죽어간 사람, 화상으로 얼굴이 부풀어 오른 채 죽어간 사람,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선채로 죽어갔다. 수조 안에는 겹겹이 시체가 쌓여 있고, 연병장은 병사들의 시체의 산이 되어버렸고, 도서관은 시체 수용소로 변해갔다.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밤새 신음 소리는 새벽녘이 되면 잠잠해 지고, 새벽이 오기도 전에 염불소리만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왜냐하면 밤새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적인 모습이 말살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겨우 겨우 살아남았다면, 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위의 인용은 그 어떤 죽음을 그려낸 픽션 보다 더 리얼리티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마지막에 ‘나’의 지인인 N이 부인을 찾는 장면이 나온다. N은 수많은 시체 속에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부인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다시 부인의 근무지인 불탄 여학교로 가는 대목에서 작품은 막을 내린다.

작가 하라 다미키는 이렇듯 당시 피폭 상황을 자세히 담담하게 그려낸 이

---

18) 原民喜 「夏の花」 『日本の原爆文学①』 p.22

19) 原民喜 「夏の花」 『日本の原爆文学①』 p.22-23

20) 原民喜 「夏の花」 『日本の原爆文学①』 p.23

21) 原民喜 「夏の花」 『日本の原爆文学①』 p.23

유는 오로지 이 상황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마음에서일 거다. 이것이 바로 작가 하라 다미키의 반전 의식이자 반핵 사상일 것이다.

#### 4. 『여름 꽃』 독서토론 감상문

지난 학기에 실시한 독서토론에서 본 논문을 위해 일본 원폭문학 작품을 읽었다. 독서토론에서 원폭문학을 토론하게 이유는 먼저, 필자의 원폭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지금 현재를 사는 대학생들은 1945년 8월의 일본의 원폭투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발생한 원폭문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이 부분은 필자가 원폭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하나 하는 절심함에서 나온 고민으로, 학생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독서토론 대상 작품은 하라 다미키의 『여름 꽃』과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였다<sup>22)</sup>. 먼저 단편소설이면서 시기적으로 일찍 발표한 『여름 꽃』을 읽고, 『검은 비』는 그 다음으로 읽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둘 다 원폭문학이라는 점에서 각자 자신들의 입장이 비슷했지만, 작품에 대한 감상은 각각 달랐다.

본 논문에서는 『여름 꽃』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상문은 학생들의 원문을 그대로 한 것이지만, 어색한 표현이나 문말 표현, 오자 등은 다소 수정을 했음을 밝힌다.

##### ① 감상문

일본 원폭 관련 소설은 처음 읽었다. 원폭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일본 원폭문학의 효시라 불리는 하라 다

22)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에 관한 독서토론은 지면을 달리해서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키의 소설 『여름 꽃』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원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원폭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공부하면 할수록, 원폭에 대해서 조사하면 할수록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원래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는 가해자인데 원폭투하로 인해 피해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원폭문학을 공부할 때는 원폭을 투하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전시 상황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

작품 『여름 꽃』은 단편소설이어서 읽는 데에는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국어 번역이 어색한 부분이 많아 이해하는데 힘이 들었다. 예를 들어 ‘때마침 휴전일이었으나, 아침부터 꽃을 들고 거리를 걷는 남자는 나 이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문장에서 ‘휴전일’과 뒷문장과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 독서토론 지도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원문에 ‘휴전일(休電日)’로 되어 있다고 하셨다. ‘休電日’을 한글로 그대로 ‘휴전일’로 번역을 한 것이다. 이럴 경우 한자라도 병기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조사해 보았더니, 전시중에 일본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휴전일(休電日)’이라고 해서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날을 정했다고 한다. ‘휴전일’은 각 지역마다 달랐다고 한다.

‘휴전일’도 미스였지만, 또한 ‘나는 변소에 간 덕에 목숨을 건졌다. 8월 16일 아침, 8시쯤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는 이상한 점이 없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8월 16일이 아니라 8월 6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8월 6일을 8월 16일로 잘못 쓴 것이다. 이런 엄청난 오자가 그대로 활자화 되어 단행본으로 출판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밖에도, ‘문득 관목 쪽에 쭈그리고 앉아 넉넉한 수족을 드러낸 채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중년 부인의 얼굴이 보였다.’라는 문장도 어색하다. ‘넉넉한 수족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역시 독서토론 지도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지도교수님이 원문과 대조해 보시더니, ‘뚱뚱한 팔 다리와 몸을 드러내 놓고’라는 뜻이라고 하셨다. 정말로 번역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순간이었다.

## ② 감상문

하라 다미키의 『여름 꽃』은 1945년 8월 6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나가사키에 살고 있던 작가가 직접 체험한 것을 소설로 발표했다는 사실에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소설 시작 부분이었다. ‘나는 거리에 나가 꽃을 사가지고 아내의 묘소를 찾아보리라 마음먹었다.’ 이 첫 문장을 읽고 느낀 것은 이 작가는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는데 아내가 먼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가의 부인은 실제로 원폭 투하 1년 전에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작가는 죽은 부인을 위해 아름답고도 슬픈 시(詩)를 써서 남기기 위해 1년만 더 살고 죽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부인이 죽고 나서 1년 뒤에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것이다. 이 인류 최초의 원폭투하의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작가는 자신이 보고 느낀 원폭체험을 기록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으로 죽는 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작품화 한 것이다. 그러다가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이번에는 한국에 원폭이 투하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비판해서 1951년 3월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작가의 생육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떠한 의미로는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라 다미키라는 작가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졌다.

작품 『여름 꽃』 속에는 여러 죽음이 그려져 있다. 제일 먼저 들어난 것은 1년 전에 죽은 부인의 죽음, 조카의 죽음, 그리고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피폭자들의 죽음, 맨 마지막에는 N이라는 지인의 부인의 죽음을 알리는 데에서 작품은 막을 내린다.

작가는 죽음을 작품 속에 그리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작가는 죽었지만, 그의 작품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읽고 있는 것이다.

## ③ 감상문

『여름 꽃』이라는 책 제목을 보고 원폭문학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읽어 보고 나서 피폭 참상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피폭 당시의 상황

을 중심으로 감상문을 쓰려고 한다.

작가가 피폭 당시 온통 무너져 내린 가옥들을 보면서 「어서 가의 붕괴」에 비유를 해서, 애드거 앨런 포우의 소설 『어서 가의 붕괴』를 읽어 보았다. 맨 마지막 부분에 어서 가의 저택이 ‘새빨간 불기둥과 함께 거대한 벽이 한꺼번에 와르르 일시에 허물어지고, 깊고 깊은 늪이 붕괴하는 어서 가의 잔해를 서서히 소리 없이 삼키고 있었다.’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눈 앞에서 그 광경이 펼쳐지는 듯 했다. 공포 분위기를 한껏 자아낸 『어서 가의 붕괴』를 피폭지에서 떠올린 것은 역시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갑작스레 머리 위의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는가 싶더니, 굵직굵직한 빗줄기가 억수로 쏟아져 내렸다.’라는 부분에서 원폭 후의 ‘검은 비’가 내리는 장면이 바로 연상 되었다.

피폭 당한 모습을 표현한 것 중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버스를 기다리던 행렬은 선 채로 죽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다. 연병장은 병사들의 주검의 산이 되어버렸고, 외곽만 남아 있던 도서관은 시체 수용소로 변해 버렸다고 했다. 곳곳에 별절게 벗겨져 살갓이 부풀어 오른 시체가 널려 있고,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나 송장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고 했다. 화상을 당한 하녀의 팔은 심하게 굵아 파리가 모여들어, 마침내 구더기가 들끓는 상태로 악화 되어 결국 죽어버렸다고 했다. 게다가 건강했던 사람도 식량 부족으로 쇠약해져 갔고, 머리가 빠지고 코피가 나기 시작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것이야말로 정밀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실현한 신지옥(新地獄)이라고 했다.

언젠가 TV를 통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버섯 모양의 구름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때는 아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여름 꽃』에 묘사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건 대량학살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인류 역사상 손꼽는 대량학살 사건이 있는데, 원폭투하도 대량학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감상문

하라 다미키의 작품 『여름 꽃』은 짧은 단편 소설이어서 읽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한테는 원폭소설이라고 하는 완전 새로운 분야의 소설이어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했었다. 그러나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이 원폭소설을 한국 대학생인 내가 어떠한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왜냐하면 원폭 피해 그 자체만 보면, 일본은 피해국인 것이다. 그런데 원폭 투하를 자초한 것이 일본국이어서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안타깝기만 하다. 더군다나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히로시마에 있었던 수많은 조선인들이 원폭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글로 써서 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원폭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탄생했다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우리도 우리가 입은 피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발생했던 피해,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등을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다양한 장르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여름에 개봉한 영화 <군함도>는 영화역사상 강제징용 노동자를 그린 첫 영화로 의미가 바가 크다고 하겠다. 온 국민 모두가 <군함도>를 보고 그 당시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하여 전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도 <군함도>가 상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름 꽃』에서 <군함도>까지 이야기가 비약해 버렸지만,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처음 읽어본 원폭 소설의 원폭 피해는 확실히 무섭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사용한 인간들의 마음, 전쟁의 승패를 가리고자 한 그 잔인함이 더 무섭다. 게다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도 원폭을 투하하려고 했던 이야기나 나왔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는 정말 아찔했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 지구상에 원폭 투하라는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다.

##### ⑤ 감상문

하라 다미키의 『여름 꽃』을 읽고 먼저 결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다.

소설은 이렇게 쓰는 것이 소설인가 라고도 생각해 보았다. 독자가 추측할 수 있도록 열린 결말로 했다고 해도 고개가 저절로 갸웃해진다.

작가는 『여름 꽃』을 통해 자신이 겪은 원폭체험을 자세히 그렸다. 집은 어떻게 무너지고, 거리는 어떻게 참변을 당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 갔는지 상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묘사했다.

그러나 작가의 원폭에 대한 적극적인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 등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물론 자신이 겪은 원폭체험을 작품화 할 때는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고발성이 강한 소설이라는 것은 읽는 독자가 다 느낄 것이다. 그래도 작품 자체만 보더라도 뭔가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일본어 표현이 굉장히 훌륭했는지는 몰라도,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으로 밖에 읽을 수 없는 우리들은 문장의 훌륭함을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여름 꽃』은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름 꽃』을 읽고 난 뒤의 뭔가 그 허전함이랄까, 아쉬운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어쩌면 당시 작가 하라다미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작품에 다 쏟아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있는 사실만을 알려 준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내가 이 작품을 읽고 새롭게 얻은 것은 원폭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더군다나 원폭병은 2세, 3세까지 대를 이어 유전된다는 무서운 병이라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독서토론 감상문을 보고 일본의 원폭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작품을 읽고 느낀 점, 그리고 작품 내용 이외의 외적인 부분까지 지적을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감상문 1은 원폭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더불어 번역에 대한 지적이 신선했다. 필자가 보아도 첫 번째 지적한 ‘휴전일(休電日)’에 대해서는 한자를 병기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휴전일’로 번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휴전일’은 한국어에 ‘휴전일’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지 않는다는 점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휴전일(休戰日)’이라고 생

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휴전일’은 적어도 ‘단전일(斷電日)’로 번역해야지만 매끄러운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인 8월 6일을 8월 16일로 활자화되어서 나왔다는 것은 명백한 오자이므로 이 부분은 꼭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인 문장 번역 역시 문제가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번역은 무엇보다도 원문에 충실하면서 번역어로서 의미가 잘 통해야 한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번역이 아닌 것이다.

감상문 2는 작품 속에 나오는 죽음에 초점을 두고 읽은 것은 학생의 문학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작품에서 포인트를 잘 찾아내서 작품의 첫 부분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보려고 한 점은 매우 뛰어났다고 본다. 분명 작가는 1년 전의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에서부터 늘 죽음이 그의 곁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감상문 3은 작품에 나타난 피폭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원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확실히 드러낸 점이 좋았다. 당시 일본 원폭 투하는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로 인해 전쟁을 종결되었지만, 인류의 상상을 초월한 원폭피해를 초래한 것이다.

감상문 4는 작품과 자신이 생각하는 한일관계를 잘 맞물려서 감상문을 풀어 낸 점이 뛰어났고, 원폭을 놓고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한 고민이 잘 나타나 있어서 좋은 감상문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감상문 5도 감상문 1과 마찬가지로 문학적 센스가 돋보이는 감상문이다. 감상문 5에 나타난 고민은 어쩌면 읽는 독자들이 의문을 지니면서도 쉽게 드러내 놓지 못하는 부분인데 과감하게 자신이 느낀 점을 솔직히 표현했다는 점에서 뛰어났다고 본다.

『여름 꽃』을 선정해서 독서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본 논문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여름 꽃』이라는 원폭문학이 문학교육 교재로서 훌륭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5. 나오며

원폭문학의 효시라 불리는 하라 다미키의 『여름 꽃』을 고찰하면서 원폭 투하로 인한 참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이 우선시 되고 나아가 경제적인 면으로 인해 좌지우지 되어 언제든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 하라 다미키 역시 전쟁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한 원폭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았나 생각하는 바이다.

『여름 꽃』은 원폭의 무서움, 공포, 그리고 파괴성을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표현으로 여실이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어찌면 이것이 문학이 갖는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짧은 단편 구조 속에서 원폭체험을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는 리얼리티를 극대화 하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이러한 평가로 인해 1974년에 처음으로 원폭문학이 고등교육교과서에 채택되어 교육의 현장에서 읽히게 된 것이다.

본 논문 작성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작업은 학생들과의 독서토론에서 『여름 꽃』을 읽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진솔한 감상이 논문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원폭문학 연구에 하나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필자로서는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ABSTRACT]

A Study on “Summer Flowers” of the Hara Tamiki of the Japanese Atomic Bomb Literature

This paper examines Hara Tamiki 's short story "Summer Flowers", which is called the Japanese Atomic Bibliography. Above all, “Summer Flowers” is highly regarded as a work containing the artist's experience of the atom bomb.

First, I looked at when the genre of atomic bomb literature was start in Japan and how the atomic bomb research was conducted. I examined the work world including the meaning of the work "summer flower".

Finally, we held a reading discussion for this paper and presented the students' appreciation with free discussion with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book discussion. This work not only helped writer to study atomic bomb literature, but also helped to determine the research direction.

Key words : Atomic Bomb Literature, Hara Tamiki, Summer Flowers, Atomic Bomb Literature Research, Hiroshima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 原民喜 「夏の花」 『日本の原爆文学①』  
丸岡明 「原爆と知識人の死」 『日本の原爆文学①』 ほるぷ出版, 1983  
山本健吉 「詩人の死」 『日本の原爆文学①』 ほるぷ出版, 1983  
長岡弘芳 『原爆文学史』 風某社, 1973.  
川口隆行 「『原爆文学』という問題領域」 『プロブレマティック 文学/教育2』 2001年7月号  
金子章子 「井上光晴の原爆文学の現代的意義」 『西武文理大学紀要』 27号, 2015. 12  
原民喜 「死と愛と孤独」 『日本の原爆文学①』  
原民喜 「原爆被災時のノート」 『日本の原爆文学①』  
이정희 「아베 고보(安部公房)의 『밀회(密会)』론」 『국제언어문학』 제28호, 2013.10  
한수산(2016) 『군함도 1, 2』 창비  
하라 타미키의 『여름 꽃』 (김정미, 김현석, 김형숙, 오석윤 옮김 『일본대표단편선 1』, 고려원, 1996)

이 논문은 2017년 7월 7일 접수되어 7월 28일까지 심사받아 8월 18일 게재 확정됨.